

안경 이야기

10회 / 안경테와 얼굴모양

李 相 旭

이 귀에 거는 안경테이다.

이밖에도 서양사람들이 예전에 애용했던 코걸이 안경이라든가 공장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보호안경이나 특수안경테등이 있다. 안경테의 재료로는 금, 도금(鍍金) 은, 청동, 백금, 닳켈 등이 쓰이지만 이중에서도 금은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적기때문에 가장 적합하여 주로 고급금속테에는 14금이 사용된다. 금속이외의 재료로는 불소플, 세루로이드, 푸라스틱등이 있는데 요사이 주로 가볍고도 튼튼한 푸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경테는 안경알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된다.

- 1) 안경알을 적당한 위치로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
- 2) 장시간 불편없이 쓸 수 있어야한다. 안경은 장시간 계속 쓰는것이 보통이니까 안경테가 피부와 닿고있는 부분에 불쾌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3) 튼튼하고 오래 가야된다.

싸구려 안경테는 곧 망가지고

안경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안경알이 되겠으나 안경은 얼굴 한복판에 설치고 다니는 것이니만큼 안경테의 모양도 절대로 무시할수는 없다.

오히려 젊은 여자에게는 안경알보다도 멋있는 안경테에 더많은 돈과 신경을 쓰고있는 실정이다.

안경테에 따라서 사람이 차갑게도 보이고 또는 촌스럽게도 보이지만, 개성에 맞는 안경테는 쓴사람을 한층 멋있게 보이게한다.

안경테의 종류는 가장 많은 것



◇ 여러가지 얼굴 모양과 안경테 / 그림·필자

또 안경테의 색깔과 얼굴의 색깔과는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얼굴이 흰사람은 진한 색이 대조적으로 되어서 개성적이지만 막상 색깔의 선택에는 열

워여지기 쉽다.

4) 미용적으로 좋아야 한다.
안경은 얼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니 기능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안경테의 미용적요소(美容的要素)는 테의 모양과 색깔에 달려있다. 사람에게 따라서 얼굴모양이 가지각색이니까 여기에 끼는 안경테의 모양도 얼굴모양에 맞춰서 선택해야 된다.

- 1) 둥근얼굴에는 원형(圓形)의 테는 맞지 않는다. 철사가 들어있는 가늘지만 테를 끼면 둥근얼굴이 개성있게 보인다.
- 2) 턱있는쪽이 넓고 얼굴 윗쪽이 적은 사람에게서는 원형이나 사각형은 맞지 않고 가늘고 뚜렷한 네가 맞는다.
- 3) 얼굴 아랫쪽이 가늘어진 탈갈모양의 얼굴에는 가늘고 길쭉한 테는 안맞으며 둥근모양의 네가 맞는다.
- 4) 비모꼴의 얼굴에는 가늘고 길쭉한 테를 쓰면 인상이 까다롭게 보이니 둥근테가 좋다.
- 5) 능형(菱形)의 얼굴에는 둥근테보다는 길고 가는네가 알맞다.

굴의 형태, 색깔, 옷과 악세사리의 색깔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표준을 얘기할수는 없고 모든것이 조화있게 이루어지도록 선택해야 될 것이다.

실국 좋은 안경이란 정확하고, 쓰기 편하고 모양이 좋은 것이라야 한다.

근년 안경테가 실용성뿐 아니라 미용면에 더욱 치중하게 되고 더우기 선글라스는 크리스찬리올 까지 등장하고 74년형 또는 75년형하고 마치 자동차의 모델처럼 해마다 유행이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안경이 악세사리로 사용 되는 것은 요즈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14세기경에는 자기 신분이나 학식을 나타내는 악세사리로 사용되었고, 중국에서도 평안경(平眼鏡)이라고 뜻수없는 안경을 멋으로 쓰기도 하였고 우리나라에도 몇십년전에는 금테안경이 하나의 멋쟁이의 악세사리로 애용된 일도 있었다.

결국은 우리는 안경테를 선택할 때 미싸고 좋게 보이는 물건이라 해서 덮어놓고 쓸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 얼굴에 맞는가에 따라서 골라야 된다.

다시말하면 안경테에 자기 얼굴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얼굴에 안경을 맞추도록 해야 된다.

<필자=가톨릭의대부속 성모병원 안과과장·의박>